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신년 김정은 사

친애하는 동지들!
사랑하는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 동포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에 뚜렷한 자
욱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
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
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지난해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
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
리 당을 따라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 전
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
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
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해 헌
신하고있는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
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
이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
에 즈음한 정치행사들과 지난해 투쟁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
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

이 하나로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紐대가 새
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벽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
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속
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투쟁
을 통하여 우리 당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강
화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 시대와 력
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며 인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억척
의 신념과 배짱으로 국방과학의 첨단을 돌파하여 선
군조선의 위력을 떨치고 국방력강화에 크게 기여하
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
령경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당과 수
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적들
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걸
음마다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
치었습니다.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군대와 인
민이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
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이 일
어나고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
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
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조국의 부강번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
들고 펼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
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
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날을 따라 새
롭게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
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
게 하였습니다. 세로등관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
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체육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
열풍으로 들끓었으며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국
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었
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
들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었습니다. 음악예
술부문에서 시대의 명품들이 많이 창작되어 천만군
민의 마음을 충정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투쟁과 위
훈으로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
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를 받들
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투쟁을 과감
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
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
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뜻깊은 2013년을
경이적인 사변들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
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 면 으 로 계 속)

신 김정은은 사

(1 면 에서 계속)

동지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진군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제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명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올해에도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려하게 건설하고 도, 시, 군들을 해당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

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이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 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에 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걸음을 내걸어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방향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였습니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심고리는 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고 군인들의 생활거점인 중대를 강화하는것입니다. 모든 중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최정예전투대로

로, 친혈육의 정이 차넘치는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명사수, 명포수 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 강한 규율성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안에 당의 령군체제와 혁명적군공을 철저히 확립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며 로농적위군은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언제나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까.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고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각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존엄하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고 벌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전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에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총부로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

는 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료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증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중북》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분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지나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행위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비약의 열풍이 나래칠 2014년의 조선

새해가 왔다. 조국은 악동하는 젊음으로 그 기상은 더욱 역세여지고 밝아온 한해에 대한 희망과 신심이 온 강산에 차넘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령도력과 체제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 《북이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북의 사회적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있다.》

새해 주제103(2014)년을

맞는 공화국을 바라보는 남조선 각계의 시각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수년째 경제침체에 빠지고 그로 인해 나라들이 더해만가는 국가재무위험으로 새해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다. 생활난에 쪼들려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투쟁이 도처에서 그칠새

없고 사회적불안정이 휩쓰는 것이 2014년에 들어선 행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동방 조선의 2014년의 아침은 튼튼하게 밝고 생기와 약동이 차넘치고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얼굴을 보아도, 매 가정의 창문안을 들여다보아도 비관과 어둠

의 빛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비록 아직은 모든것이 넉넉치 못해도 머지않아 모두가 만복을 누릴 그날이 온다는 신심과 락관, 새해에는 또 어떤 크나큰 변화와 승리의 기적이 마련될것인가 하는 기대와 희망이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부풀게 하고있다.

조선의 2014년은 최대의 정치적안정속에 찾아왔다.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되고 사회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사회는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령도는 장장 60여년, 그 령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온하고 령도자와 군민이 사상적일치로 뭉친 일심단결의 최전성기가 지금 공화국의 이 땅우에 펼쳐져있다. 바라다보고 해서 누구나 이룰수 없는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최대의 힘이고 2014년을 활력있게 떠밀어갈 선군조선의 추진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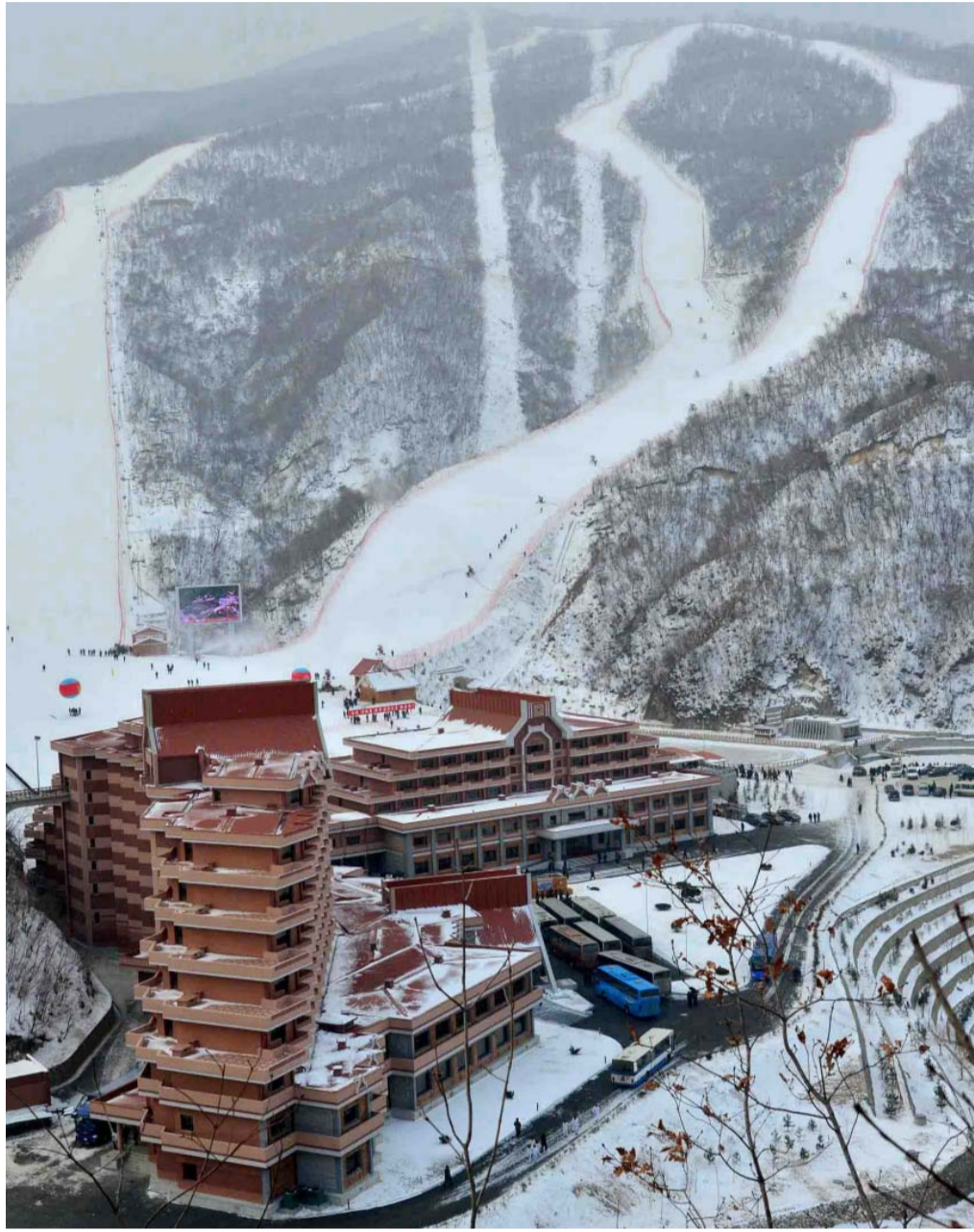
공화국의 지난 한해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의 한해였다. 도처에 통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유류아동병원, 류경원을 비롯한 행복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의 즐거움은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온 한해 강산을 가득 채웠다. 나날이 변모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뿌듯이 체험하였다.

지금 흰눈덮인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은 개장되어 사람들을 기다리고있다. 경길이 너무 높고 험해 말들도 쉬어간다는 마식령지구가 인민의 새로운 문화휴식터로 전변될줄은 이 나라 인민들은 얼마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꿈이 하나둘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지나

위대하고 그 령도의 손길이 얼마나 세련되고 뛰어난것인가를 군대와 인민은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다.

온 한해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을 무수히 일떠세우고도 한해가 저무는 12월의 마지막 날들도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 인민의 기쁨넘친 모습을 기쁨속에 그려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조선의 2014년은 이렇게 찾아왔다. 절세위인이 한해의 마지막 령도자육을 남기신 마식령스키장의 드넓고 시원하게 뻗어내린 은빛주로처럼 눈부시고 기세차게 폭풍처럼 내달릴 선군조선의 비약의 2014년이다.



조선의 2014년은 최대의 정치적안정속에 찾아왔다.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되고 사회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사회는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령도는 장장 60여년, 그 령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온하고 령도자와 군민이 사상적일치로 뭉친 일심단결의 최전성기가 지금 공화국의 이 땅우에 펼쳐져있다. 바라다보고 해서 누구나 이룰수 없는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최대의 힘이고 2014년을 활력있게 떠밀어갈 선군조선의 추진력이다.

공화국의 2014년은 인민의 기쁨과 행복넘친 노래소리에

은 2013년도 좋지만 새해 2014년은 또 얼마나 더 눈부시고 희망넘친 한해인가. 모두가 락관하고있다. 희망에 넘쳐 한해를 내다보며 자신들의 더운 피, 애국의 정열을 위대한 이 조선 위해, 2014년에 바치려는 열의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하다면 희망과 락관의 2014년 아침은 어떻게 밝아오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사변이나 번영과 같은것은 절로 오지 않는다.

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 강철의 의지를 지닌 결출한 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

조선에는 인민의 모든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절세의 위인, 창조의 거장 이 계신다. 그이신 인민의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지난 2년간 탁월한 령도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

시고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령도를 이 땅우에 수놓으시었다.

우리모두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자며 앞장서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역경이 순정으로, 화가 복으로 전환되고 《마식령속도》도 창조되어 령사에 류례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불과 한 해사이에만도 평양이 불라보게 달라졌으며 인민들의 웃음소리 드높은 사회주의 선경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졌다.

새겨온 믿음과 사랑의 세기를 펼쳐 천만인민을 매혹시키고 온 세상을 통채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결출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2014년에도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할것이며 우리 조국에는 새로운 변혁과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적 신년사와 함께 선군조선의 장엄한 2014년의 대진군은 시작되었다.

본사기자 리경철



세계 일류급으로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사람들의 발걸음에 희망찬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가득 실려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이 나라 인민이다.

어제는 오늘과 래일을 비취주는 령사의 거울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파라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기적을 일으켜 강성번영의 위대한 전망을 열어놓은 지난해의 자랑찬 결실에서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기적과 비약으로 환희로울 올해의 전망을 보는것이다.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살아도 죽는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초 이 땅에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해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었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이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앞에서 전면대결전을 선포한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산악같이 일떠서 적대세력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걸사수호하였다.

지난해에 이 나라 인민은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것이지만 비상한 건설속도로, 설계로부터 시공, 주변환경조성에 이르기까지 선진관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질제고에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완전무결한 창조물들을 9개월동안에, 미림승마구락부는 7개월동안에 건설하는것과 같은 비상한 건설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드는 건설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낳은것이다.

서도 눈부신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게 되었다. 강원도의 세로동관을 개관하는 대자연개조의 열풍속에 수만정리의 등관개간과 자연풍관정리, 수천여정보의 인공풍관조성, 수백여동의 건축공사 등 방대한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착공후 한해사장을 9개월동안에, 미림승마구락부는 7개월동안에 건설하는것과 같은 비상한 건설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드는 건설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낳은것이다.

다. 조선은 이 위력으로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전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무비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떨친 지난 해를 금지높이 돌이켜보는 공화국인민들은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파라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를 빛내이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기여할 애국충정의 마음을 가득하고있다.

건설전대공업성 국장 리효민은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새해에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보다 훌륭하게 일떠세울것이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평양종합인쇄공장의 김철국은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에 자기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갈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애국애족의 뜻과 발걸음따라 힘찬 전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애국의 열의가 있어 공화국이 밝아온 이 한해에 보다 큰 비약과 번영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본사기자 주일봉

창창한 래일을 확신한다

새해를 맞고보니 자연히 생각이 깊어진다. 지나온 나날에 대한 추억에서만이 아니다.

사람은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고 했다지만 요즘은 자꾸만 과거보다도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나 자신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그려보며 살고있다.

사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면 아버지장군님께서 천만 뜻밖에도 서거하시었을 때 나는 지구가 통채로 깨어지는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하였었다.

몸은 비록 만리이외땅에 살아도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던 우리들이었다.

하지만 커다란 상상의 아픔속에서도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머리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일떠세웠다.

태양과 같이 환하신 모습, 활달하신 걸음새, 대해같은 인덕... 그이신 분명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장군님과 똑같은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국땅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눈부신 현실을 놀라움과 경탄속에 목격하면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령도자의 발걸음 따라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순결한 애국충정으로 받들어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퍼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파라 전체 인민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비긴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것이지만 비상한 건설속도로, 설계로부터 시공, 주변환경조성에 이르기까지 선진관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질제고에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완전무결한 창조물들을 9개월동안에, 미림승마구락부는 7개월동안에 건설하는것과 같은 비상한 건설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드는 건설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낳은것이다.

전선 60돛을 맞으며 평양에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같은 기념비적건축물들도 절세위인들의 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 공화국인민들의 영웅적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주도록 하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매혹된 건설자들은 비록한 전체 인민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다.

지난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 인 령도에 의해 경제건설에

설이 진척되었고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안북도 창성의 지방산업공장과 같은 인민의 부리향상을 도모할 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참으로 지난 한해동안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애국헌신의 뜻과 발걸음을 따라 한사람같이 일떠서 단숨에의 속도로 불같은 애국충정으로 조국청사에 전례없는 창조와 건설의 대변혁을 안아왔다.

하기에 애즈트신문《알아 호랑이》은 《조선의 위력은 전체 인민이 김정은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데 있

다. 조선은 이 위력으로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전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무비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떨친 지난 해를 금지높이 돌이켜보는 공화국인민들은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파라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를 빛내이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기여할 애국충정의 마음을 가득하고있다.

건설전대공업성 국장 리효민은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새해에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보다 훌륭하게 일떠세울것이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평양종합인쇄공장의 김철국은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에 자기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갈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애국애족의 뜻과 발걸음따라 힘찬 전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애국의 열의가 있어 공화국이 밝아온 이 한해에 보다 큰 비약과 번영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본사기자 주일봉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김철성

악동하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

승리와 비약의 더 큰 한해

을 받는 지도자가 김정은최고사령관이다.》(재미동포 로길남)

《한없이 튼튼하면서도 겉치기 넘치고 끈없이 견디며 하시면서 또 철학을 움직일 영웅남아다운 기상이 넘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 또 한분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재일동포 고경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두해동안에 너무나 빨리 많은것

이 달라진 조국의 현실에서 김정은원수님의 정치경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그분은 회색의 영결기이다.》(재중동포 김남희)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진취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조선의 찬란한 미래이다. 그 미래에는 인민의 화합과 단결은 갈수록 굳건해지고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오를 조국의 앞날을 축복한다.》(재로동포 김 에두아르트 니콜라에비치)

《김정은각하를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령도 밑에 2014년을 승리와 비약의 더 큰 해로 빛낼것이다.》(스웨덴에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

《조선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 만약 새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전쟁과 같은 결과로 남지 않을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인디

가 달라진 조국의 현실에서 김정은원수님의 정치경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그분은 회색의 영결기이다.》(재중동포 김남희)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진취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조선의 찬란한 미래이다. 그 미래에는 인민의 화합과 단결은 갈수록 굳건해지고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오를 조국의 앞날을 축복한다.》(재로동포 김 에두아르트 니콜라에비치)

《김정은각하를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령도 밑에 2014년을 승리와 비약의 더 큰 해로 빛낼것이다.》(스웨덴에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

《조선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 만약 새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전쟁과 같은 결과로 남지 않을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인디

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 통일문제는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신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리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들은 조선 통일을 위한 확고한 리정표로 된다.》(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비범한 령도풍모를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며 고귀한 업적을 쌓으시는 절세의 애국자, 천출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가 달라진 조국의 현실에서 김정은원수님의 정치경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그분은 회색의 영결기이다.》(재중동포 김남희)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진취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조선의 찬란한 미래이다. 그 미래에는 인민의 화합과 단결은 갈수록 굳건해지고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오를 조국의 앞날을 축복한다.》(재로동포 김 에두아르트 니콜라에비치)

《김정은각하를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령도 밑에 2014년을 승리와 비약의 더 큰 해로 빛낼것이다.》(스웨덴에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

《조선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대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 만약 새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전쟁과 같은 결과로 남지 않을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인디

1967년에 처음 조국을 방문한 때부터 나는 거의 해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데 그 회수는 수십여차례나 된다.

하지만 매년 조국에 올 때 마다 나는 조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다. 이번에는 그 놀라움이 더욱 컸다. 불과 1년도 되나마나 한 사이에 평양이 이렇게 달라질수도 있는가하고 참관 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유류아동병원,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

지난해 4월에 왔을 때만 해도 볼수 없었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었다.

그렇듯 방대한 규모에 것처럼 화려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문수물놀이장에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

리 넘쳐나는것을 보면서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마다 줄 공화국의 정열을 온 몸으로 느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내부와 외부 할것없이 세상의 그 어느 기념관도 견주지 못할 최상의 수준이었다. 미림승마구락부에 가서는 지도 모르는 사이에 청춘시절로 되돌아가 말을 타고 넘어 달려보기도 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다른 나라같으면 몇년은 실히 걸릴 거창한 창조물들을 우리 조국에서는 1년도 안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떠세웠다는 사실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파라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에서는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강산이 천지개벽되고 있다.

눈부신 조국의 발전모습은

갑차뜨까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모여앉으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야래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새해에도 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향하여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국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조국을 위한, 동포들을 위한 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새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부회장 리재선



본사기자 주일봉

2014년에 통일위업실현에서 큰걸음을

분렬,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이 커다란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어언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이 지나간 나날 우리 겨레는 전쟁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었고 근 70년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쳐왔다. 분렬은 우리 겨레모두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만을 남기었으며 이무 헤아릴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분렬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는것은 이제 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 리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군사적긴장과 대결의 팽팽한 분위기만 떠도는 오늘날 현실은 우리 겨레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에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을 벌려온 지난 6.15통일시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여러 형태의 북남대화들은 지난 시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화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 각 방면에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어갔다.

당국뿐만아니라 민간단체들 사이의 래왕과 교류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마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해내외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연합이 강화되었다. 군사분야에서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이 중지되고 원한의 군사분계선철조망과 지뢰들을 걷어내고 철도와 도로가 다시 련결되는 등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

었던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명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펼쳐진 6.15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는데 뜻을 같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열려진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근 200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에서,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서 북의 인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밝아오는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평양과 서울, 백

두산과 제주도, 금강산과 부산 등은 삼천리강토가 겨레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시위하는 감격과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이처럼 대화와 협력, 래왕과 교류의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놓았다.

남조선에서 대결과 분렬만을 추구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북남관계와 6.15통일시대가 진통을 겪고 있는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말악적인 책동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수 없다. 불의는 멸망하고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통일운동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지금 내외분렬주의 세력은 우리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지만 그 어떤 세력도, 그 무슨 힘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세울수

는 없다.

새해 2014년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통일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심장에 조선민족의 피가 뛰고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무슨 일을 하건 오직 통일만을 생각하고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부종시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북》으로 몰아 정신육체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셔버리며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성취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똠진다면 밝아온 2014년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큰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해로 력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새해를 맞으니 분렬의 년들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온 겨레가 단합하고 노력하여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른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지도 어언 69년, 분렬의 비극사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통일

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이다. 누구도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때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할수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분렬책동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겨레의 통일의지는 꺾을수 없고 우리 민족은 기필코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할것이다. 그러자면 2014년을 통일운동의 큰 성과로 빛내야 한다. 기울인 땀과 노력이 없이 소중할 열

매를 바랄수 없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전쟁공조책동을 짓부시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는데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갑오년의 피의 교훈을 새겨보며

새해를 맞고 보니 120년전 《적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에 걸기했던 농민군의 함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민족사의 한페이지에 갑오농민전쟁으로 새겨진 그 나날들에 이 땅의 무수한 농민들은 《보국안민》을 웨치며 정의의 창검을 비껴들었지만 《거류민보호》라는 미명하에 이 땅에 상륙한 일본침략군대에 의해 봉기는 실패하고 이 나라의 산과 들은 겨레의 붉은 피로 물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족의 력사를 뒤돌아보면 외세는 집요하게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고 침략의 길은 손길도 뻗쳐왔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오랜 역사를 강요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에 끼어들어 초래될것은 민족의 불행과 재난뿐이다. 이것은 민족사의 피에 젖은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지난 한해에도 외세의존에 매달려 동족암살을 위한 《공조수립》책동에만 광분하여왔다. 결과 이 땅에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국면도 날려버리고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수행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왔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자면 외세와 짝짜꿍이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제 민족이 우선이고 바로 민족중시의 바른 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도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과 이 땅의 천도교인들도 남녘의 천도교인들과 뜻과 힘을 합쳐 새해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알심있게, 활력있게 벌려나갈것이다. 통일을 일일천추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내외분렬주의세력에게 강타를 안기면서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애국운동에 모두가 힘차게 떨쳐나서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있는 기본장애편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이다. 지난해에만 보아도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할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변하지 않은 동족대결정책 때문이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더우기 상대방을 해칠 공중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남측은 말로는

하게 돌아치며 동족에 대한 제재를 구걸하고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아 북남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갔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온 한해

대결의 케도에서 벗어나야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중대제안을 몇차례나 남측에 제기하였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어떻게 하나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양보도 하고 인내력도 발휘하였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고 진행되어가던 북남대화가 중단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것

《신뢰》를 위우면서도 행동은 반복적으로 일관하였다.

《원칙고수》, 《새로운 남북관계》를 운운하며 신성한 통일대화를 대결을 고취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대화의 막뒤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대규모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아 온 겨레의 격분을 샀다. 그런가하면 세상이 좁다

동안 광란적인 《중북세력척결》소동을 벌려놓아 대결분위기를 한껏 고취해왔다. 이처럼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동족을 《적》으로 삼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고있는데 북남관계가 제대로 되어나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민족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은 더욱 고조될것이며 종당에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새해에는 대결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진실로 민족중시의 립장에 서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갈 때만이 정상적인 북남관계를 기대할수 있으며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것은 2013년이 새겨주는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하며 단합된 투쟁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와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재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애국가업에 서의 성과와

해내외 동포여러분의 통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축하합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103(2014). 1. 1



2013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7초, 58초, 59초... 드디어 새해 주제103(2014)년이 밝아왔다.

1월 1일 0시, 밤하늘을 찬란히 밝히려는 축포의 장쾌한 울림, 환희와 기쁨에 넘친 사람들의 탄성이 김일성광장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 로화자의 모습도 보이고 짧은 용암야냥 북받치는 격정을 한껏 터뜨리는 청춘남녀들의 희열에 찬 모습도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잡고 새해의 첫 순간을 마중 나온 아이들도 너무 좋아 발을 뚫둥 구른다.

홍분과 감격으로 설레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 못 잊을 추억을 새겨준 2013년이 가슴뜨거이 돌아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거यी 찬란한 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한 승리의 한해였다. 나래퍼는 희망도 품은 소년도 경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현실로 펼쳐진 행복의 2013년이었다.

그런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새해 2014년은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 더욱 눈부시고 희망찬 한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다 그런 희망,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새해의 0시를 기쁨속에 축하한다. 김일성광장뿐 아니라 온 나라 집집마다에서.

본사기자

주제 103(2014)년의 첫 아침이 밝아온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희망과 신심이 가득 차넘치고있다.

지난해는 공화국의 력사에서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한해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뜻깊은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 김일성장군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성대한 행사들은 령도자와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공화국의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난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이 땅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하나둘 눈부신 현실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로 펼쳐졌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와 살림집들, 최상급의 병원들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일떠서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졌다.

선군의 기치따라 걸어온 지난해를 긍지높이 추억하며, 더 높이 비약할 조국의 모습, 눈앞에 펼쳐질 보다 큰 행복을 환희에 넘쳐 그려보며 기쁨과 희망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떨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부장조국의 레일을 하루빨리 안아올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화국 인민들의 새해 첫 진군길의 진두에는 승리와 희망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떡없으며 바라던 모든 꿈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진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있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다.

새해 2014년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갈 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새해의 이 아침 사람들은 서로마다 덕담을 건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부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건강하여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모두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인사말들이다. 허나 그중에서도 새해에 부 많이 받으라는 말이 나라의 귀전에 류달리 정경계 들려온다.

왜서일까. 해마다 설날이 오면 흔히 주고받는 덕담중의 하나이건만 2014년 새해에는 보이란 말이 별스레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보이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과 그것으로 말미

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이 깊어진다. 2013년 1월 1일에도 사람들은 부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이하였었다.

이제는 지난해로 불러오는 2013년, 그 한해동안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안았던가.

학 교육자살림집, 그 이름도 유정한 옥류야동병원과 류경스키장,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웃음넘치는 만복의 터전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과연 상상이나 했던가. TV에서 다른 나라의 눈엣인 스키장들을 무심히 바라

가 꾸어지게 되었다. 누구나 생활에 만족하여 즐거워하고 있고 기쁨에 넘쳐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제도, 인민대중중심의 정치하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울려 퍼진 2013년이었다.

하다면 새해 2014년에는 또 어떤 복이 차례질는지,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해를 내다보며 궁금해하고 내심 기대하는 복에 대한 생각들이다. 분명한 것은 인민의 제일을 내세우고 뛰어난 령도실력을 지닌 절대위인이 계셔 공화국의 새해는 더욱 흥하고 인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 복이 차례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해에 부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과 신심으로 부풀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를 들을수 없는 이해의 설인 사이다.

김준경

새해에는 또 어떤 복이...

1월 1일 아침 사람들은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대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받아안았다.

령도자의 축복으로 시작될 뜻깊은 2013년이었다. 그래서인지 온 한해동안 공화국 인민들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아안았다.

온 나라 곳곳마다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졌던 것이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은하 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

새해를 앞둔 평양의 밤거리는 명절분위기에 들떠 잠들 줄 몰랐다.

새해를 맞이할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싶은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 다니는 로력영웅이며 공훈설계가인 고인수선생의 가정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흥희희 녀성이 나와 반갑게 맞이하며 하는 말이 얼마전에 남편(고인수)이 건설부문일군대 강습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는데 양력설을 앞두고 쌍둥이손녀들까지 태어나 집안에 경사가 겹쳐졌다고, 그



방문기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고인수선생의 어린시절은 바람세찬 일본땅에서 흘렀다. 그의 식구들은 살림살이가 쪼들릴대로 쪼들려 제 집이라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비좁은 세방에서 여덟식구가 살다나니 아버지는 연혁명사적판설계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설계에 참가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

그가 설계한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준공식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주 멋있다고, 설계도 잘하고 짓기도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라고 높이 평가하실 때 고인수선생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제가 설계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여러차례나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력영웅으로, 공훈설계가

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인수선생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이제는 년세도 많은데 취취취 일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자 고인수선생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자면 할 일이 많습니다. 문명국의 레일은 우리 설계자들의 설계력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건축설계가들에 대한 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하면 어찌가 무겁다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세계적수준을 통가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1번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열정에 넘쳐 말하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갈 그결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문밖을 나서는데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희망찬 새해, 건설에서 대변영기의 첫 아침이 동터오고있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고인수선생의 가정 (왼쪽에서 세번째)

주제 103(2014)년 새해 우표가 나왔다

주제 103(2014)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친리마동상과 웅장 화려한 창조거리의 전경을 통하여 《마식령수도》 창조 불길높이 새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 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인민이 바라던 모든 꿈과 리상이 현

실로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의 모습을 함박눈이 내리는 즐거운 설풍경속에 보여주고있다.

우표에는 새해 2014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국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표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제 103(2014)》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민족적정서를 안겨주는 달력들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을 맞으며 주제성, 민족성이 활짝 꽃피어나는 공화국의 현실을 담은 여러종의 달력들이 나왔다.

이번에 평양출판사에서 내놓은 새달과 독특한 무늬, 기발한 형태를 가진 도자기꽃병들을 소개한 달력을 내놓았다.

아름다운 큰살진대꽃송이를 림상시키는 화려한 큰살진대꽃색유꽃병이며 독특한 모양과 간결한 색조화, 섬세한 형상으로 청신함을 더해 주는 설경장식꽃병, 예로부터 류경이라 불리우는 평양을 상징하는 버들가지유를 정답게 날아는 한쌍의 제비를 형상함으로써 백화만발한 봄날의 정서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제비하회꽃병 그리고 장성도꽃병, 살구꽃무각꽃병, 계장식꽃병, 모란련속무늬꽃병 등을 소개한 도자기꽃병달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의 옛 화가들에 대한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부풀게 한다.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이름높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펼쳐보이는 사계절경관달력과 우리 나라의 옛 화가들의 그림들을 소개한 달력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달력에 소개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웅자로부터 천하결경을 자랑하는 금강산



수출입사에서는 맛과 냄새, 색깔이 독특하고 약리적이치가 높아 장수보약리리를 소개하였다. 모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메기전골이며 고기쟁반국수, 단고기장, 약밥, 사과화채, 과일겉설기 등 민족음식들은 하나하나가 특색있는데다가 만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소개해주어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다.

새해 2014년의 달력들은 겨레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제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통일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해외동포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